남구, 광주 유일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우수기관'

전국 18개 지자체 선정
장애아동 감각통합 교실 등
수요자 중심 서비스 호평

광주 남구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평가'에서 광주 지역 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6일 남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보건소 258곳과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 가운데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광주 남구를 포함해 전국 18곳이다.

평가에는 지난해 건강보건 사업 서비스 수행 실적을 비롯해 자원 활용 우수성, 사업 운영 노력까지 3개 분야 9개 항목을 반영했다.

남구는 지난해 장애인 건강 문제를 총체적으로 파악한 뒤 장애 유형에 따라 장애아동 감각통합 교실과 뇌병변 장애인 뇌 건강 충전 교실, 지적장애인 인지재활 교실, 낙상 예방 운동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요자 만족도를 높인 점이 호평받았다.

또 재활운동실 운영과 찾아가는 방문 재활서비스, 거동 불편 장애인을 위한 의료방문 서비스팀을 운영해 관내 장애인이 일상의 삶을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건강 증진에 노력을 기울인 부분도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

이와 함께 남구는 차별 없는 의료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전남대병원과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호남권역 재활병원 등과 연계해 재가 장애인 Home Help 서비스와 재활의학과 전문의 자문, 여성장애인 뷰티교실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남구 관계자는 "관내 장애인의 건강 수명 증가를 위해 건강 상태 평가 및 욕구를 파악한 뒤 수요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 부분이 주효했다"면서 "특성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관내 등록장애인 706명에 대한 건강관리 및 건강평가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건강 수준 격차를 줄이는 데 힘쓰고 있다. 박찬 기자

광주 남구 관계자가 최근 열린 보건복지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평가 시상식에서 우수기관상을 수상하고 있다. 광주 남구 제공

멍때리기 대회 참가자 모집
서구, 9일까지 모집·70팀 선발

광주 서구는 오는 19일 지친 일상에서 잠시 머리를 식힐 수 있는 힐링 대회인 광주서창억새멍때리기대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서구는 제9회 광주서창억새축제 참여 프로그램 중 하나로 멍때리기대회를 기획해 오는 9일까지 참가신청을 받고 있다. 총 70팀을 선발해 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개인 또는 최대 3명까지 팀으로 참여 가능하다.

멍때리기대회는 90분간 멍한 상태를 유지하고, 15분마다 한번씩 심박수를 측정한 결과와 현장 시민투표를 통해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이번 행사는 멍때리기대회 저작권을 갖고 있는 웁쓰양컴퍼니와 협업해 진행한다. 웁쓰양컴퍼니는 서울과 홍콩, 도쿄 등에서 국제적으로 멍때리기대회를 개최하며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가을바람 부는 토요일 오후 은빛 억새밭에 앉아 직장, 육아, 학업 등 일상의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서창억새축제는 시끌벅적한 여느 축제와 달리 쉼과 힐링을 선물하는 특별한 축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상아 기자

광산구, 선·이주민이 함께하는 '광산세계시장' 개최

12일 광산구 월곡동 621 일원서
베트남·중국 등 18개국 공연 다채

광주 광산구가 오는 12일 광산구 월곡동 621 일원(목련로 롯데하이마트~하남농협산정지점)에서 하룻밤 세계여행 '광산세계야시장'을 연다.

6일 광산구에 따르면 광산구는 지난 2008년부터 세계시민문화한마당이라는 이름으로 접근성이 좋은 공원 등에서 개최했다.

올해부터 광주시 가을 축제인 'G-페스타 광주'와 연계해 '광산세계야시장'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외국인 주민이 많은 월곡동 일원에서 진행한다.

광산세계야시장은 광산구의 차별화된 문화 다양성의 의미와 가치를 알리고, 마을 생활권 안에서 축제를 개최해 선·이주민의 화합과 상생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축제는 △베트남 △중국 △인도 △터키 △카자흐스탄 등 18개국이 참여해 케이팝(K-POP)을 비롯한 다채로운 공연과 이색적인 먹거리, 부대행사 등으로 채워진다.

또 △개그콘서트 김영희의 선·이주민 상생 말자할매 이야기 공연(토크쇼) △10개국 공동체의 상생 메시지 담은 번개 공연 행진(플래시몹 퍼레이드) △고려인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골목 여행과 이주 역사 문화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광산세계야시장을 통해 선·이주민 모두가 소통하고 화합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광산구를 넘어 전국을 대표하는 세계인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는 축제 안전을 위해 월곡동 일대를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13일 오전 6시까지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할 예정이다. 해당 구간은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시내버스 상무62번과 일곡10번도 우회 운영한다. 김상철 기자

북구, 중소기업 '노사 화합 한마당' 개최

30일 북구종합체육관…종사자 격려

광주 북구가 오는 30일 북구종합체육관에서 '중소기업 노사 화합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북구는 지역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상생하는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노사 화합을 도모하고자 지난 2022년부터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행사는 북구가 주최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첨단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본촌산업단지관리공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첨단산업단지 ESG 커뮤니티가 협력 기관으로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북구 관내 중소기업 임·직원 3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으로 식전 공연과 개회식, 화합 한마당이 차례로 진행된다.

식전 공연에는 '플루티스트 나리'의 플룻·보컬 공연이 펼쳐진다. 개회식에서는 노사 협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헌신한 모범 근로자 6명에게 '구청장 표창'이 수여된다.

화합 한마당에서는 중소기업 종사자 간 친목을 다지는 명랑운동회와 10개 팀 장기자랑 경연대회가 열린다. 또 축하공연, 행운권·경품 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계획이다.

특히 장기자랑 경연대회는 △대상 100만원 △최우수상 50만원 △우수상 20만원 △참가상 5만원 등 10개 참여팀 모두에게 상금이 제공될 예정이다.

경연대회 참가자 모집은 현재 선착순 접수 중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종사자는 행사 웹 포스터 QR코드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 산업단지지원과에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를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와 근로자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이번 행사가 기업 관계자분들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추스를 수 있는 휴식과 같은 축제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반려동물 교육 프로그램
광산구, 1인 가구 대상

광주 광산구가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반려동물 교육을 신설해 눈길을 끌고 있다.

6일 광산구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반려동물에게 발생하기 쉬운 불안 증세 등 문제행동을 예방·교정 및 올바른 반려동물 양육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1인가구 반려동물 돌봄 교육 프로그램은 △반려동물 문화교실 △찾아가는 반려견 훈련사 두 과정으로 운영한다.

반려동물 문화교실은 광산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나는 SOLO' 닥터 솔루션 △댕댕이 자가(셀프) 집밥 교실 △독(Dog) 요법(테라피) 관리 △하모니 산책교실(이론·실습, 2회) 등 총 4개 과목을 진행한다.

찾아가는 반려견 훈련사 과정은 수강생 자택 또는 인근 공원에서 진행하며, 전문훈련사와 1대1로 양육 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맞춤형 교육이다.

1인 가구 반려동물 돌봄 교육 참여 대상은 광산구민이면서 동물 등록한 반려견 소유자다.

신청 기간은 각 과목 수업 전까지 구글 폼으로 신청 가능하며, 찾아가는 반려견 행동 교정은 12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선정 발표는 교육 전 개별 안내할 예정이며, 교육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광산구 산업혁신과(062-960-8513)에 문의하면 된다.

김상철 기자

기업 이전 활성화 지원 공모 선정
동구, AI 헬스케어 유치 목표

광주 동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기업 이전 활성화 지원 컨설팅' 지원 공모에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기업 이전 활성화 지원 컨설팅'은 비수도권 지자체의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1·2차로 나눠 선정 결과를 발표, 전국 69개 자치구 중 동구가 유일하게 선정됐다.

동구는 광주 구도심으로, 소상공인 위주의 산업구조로 인한 산업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회 발전 특구 지정 및 지역 특화산업인 인공지능(AI) 헬스케어 분야의 앵커 기업 유치를 목표를 컨설팅을 신청했다.

인구감소 관심 지역·투자 환경 개선 시급성·기업 유치 의지·지역 형평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컨설팅은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에서 진행하며, 지역산업·입지·인력 여건·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 방안 등을 심층 분석해 맞춤형 컨설팅을 오는 12월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동구는 AI 헬스케어 기업의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산·학·연·병 협력 네트워크 구성, 2024 공공서비스디자인단 활동을 통한 초기시장 형성 지원 방안 모색 등 다양한 정책과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2024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민현기 기자